

담양엔 제과점·나주엔 공부방 많이 생겼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4월말 통계

올 들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담양에서는 제과점이, 나주는 교습소·공부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광주 7만5965개·전남 9만1620개 등 16만 7585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음역)을 판매·제공하는 100가지 업종을 '생활업종'으로 지정해 매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7만1610개)보다 6.1%(4355개) 증가했고, 전남은 8만6112개에서 9만1620개로 6.4%(5508개)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광주 330개·전남 572개 증가했다. 전체 사업자 수는 263만3527개로, 전년(243만

각 67%·95% 증가 '전국 최고' ...광주·전남 전체 9863개 늘어

신안 펜션 증가율 전국 2위·대불산단 영암 '외국식 전문점' 1위

3695개)보다 8.2%(19만9832개) 증가했다. 사업체 절반 가량(49.2%)인 129만여 개는 서울(52만4841개)과 인천(13만6437개)·경기(63만4614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세종시 사업자가 14.2%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종에 이어 경기(11.5%), 인천(9.9%), 제주(9.2%), 서울(8.3%), 부산(7.2%), 대구·경남(각 6.7%), 충남(6.5%), 전남(6.4%), 울산(6.1%), 광주·대전·충북(각 6.1%), 경북(5.9%), 강원(5.6%), 전북(5.0%)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이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분야별로 4월 기준 사업체 수를 분석해보니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담양에서는 제과점이, 나주는 교습소·공부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담양에서는 제과점이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5개로, 1년 새 10개(66.6%) 증가했다. 담양에 이어 경북 울진(41.1%)이 증가율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영광은 38.4%(13개→18개)로 3위에 들었다.

커피음료점 증가율은 함평(64.7%)과 영암(46.6%)이 각각 전국 2위, 4위를 차지했다. 함평 커피음료점은 전년보다 11개 늘어난 28개, 영암에는 14개 증가한 44개가 있다.

해의 여행길이 막힌 수요가 전남 관광지로 몰리면서 펜션·게스트하우스 증가율 2-5위는 전남지역이 포섭했다.

천사대교와 임자대교가 잇따라 생긴 신안은 숙박시설이 40개에서 93개로, 무려 132.5% 증가했다. 전북 남원 증가율이 235.7%로 1위를 차지했

고, 신안에 이어 진도 115.7%(19개→41개), 고흥 108.0%(25개→52개), 영광 91.6%(24개→46개)가 뒤를 이었다.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기타 외국식 전문점이 15개에서 23개로 늘어나며 전국 증가율 1위(53.3%)를 기록했다. 무안 편의점 증가율은 32.0%(50개→66개)로 5위에 올랐고, 채소가게 증가율은 구례(76.1%·21개→37개)와 광주 동구(58.3%·12개→19개)가 각각 1위, 5위를 나타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품은 나주는 교습소·공부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나주 교습소·공부방은 37개에서 72개로, 94.5%나 증가했다. 영광은 9개 늘어난 25개로, 전국 증가율 5위(56.2%)를 기록했다.

이외 광주 동구 스포츠시설 운영업 사업자가 22개에서 34개로 늘며 증가율 3위(54.5%)에 올랐고, 화산 피부관리업은 20개에서 27개로 증가하며 증가율(35.0%) 4위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305.21 (+12.00)
↓ 코스닥	1044.96 (-2.37)
↑ 금리(국고채 3년)	1.465 (+0.003)
↓ 환율(USD)	1129.70 (-2.10)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 신청 해양에너지 16일까지

해양에너지는 오는 16일까지 '10기 광주 시 청년 일경험드림'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이면 참가할 수 있다. 이달 16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참가자는 5개월 동안 주 25시간(하루 5시간) 탄력근무를 하며, 2021년 광주시 생활임금 1만520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해양에너지는 참가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드림터)에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재기 위해 경제총조사 적극 참여를”

'일일 조사원' 류근관 청장 광주 대학가 음식점 방문

“통계청에서 오셨다고요? 빗길에 찾아 오느라고 생겼어요.”

38년 역사를 지닌 광주 대학가 대표 떡볶이 맛집 '무진장떡볶이'(동구 서석동)를 운영하는 한양수(72)·홍수(68)씨 자매는 6일 오전 경제총조사 조사원을 함박 웃음으로 맞아줬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동을 파악하기 위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벌이고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경기 부천과 부산 등을 거쳐 이날 광주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일 조사원으로 나섰다.

류 청장과 조사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설문을 이어갔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 영업 기간 등 13개 공통항목과 연간 생산량, 매출 형태별 수입액 등 13개 특성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 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한씨 자매는 류 청장의 질문에 꼼꼼히 답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영업 환경에 대해서도 속사포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

30분 간 설문을 진행한 류 청장은 이정화 서여가



6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무진장떡볶이'에서 류근관(가운데) 통계청장이 사업주 한양수·홍수씨에게 '경제총조사' 설문을 하고 있다.

에 의뢰한 글귀 '달콤하고 매콤하게 담기는 추억 한 접시'를 선물하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류 청장은 바쁜 와중에도 조사에 응하는 사업주에게 감사의 전하며 조사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국가 기초통계가 필요하다"며 "전국 1만4000여 조사요원들이 벌이고 있는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 가량이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다.

광주에서는 373명의 조사요원들이 전국 2.8% 비중을 차지하는 9만3000곳을 조사한다.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1만8000개도 포함됐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이달 9일까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ecensus.go.kr)에서 진행된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5세대 스포티지 사전계약 돌입

기아는 이달 출시 예정인 신형 스포티지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기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모델로, 기아의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특히 기아는 3세대 신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형 스포티지의 공간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장(길이)은 4660mm로 기존보다 175mm 늘어났고,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간거리는 85mm 늘어난 2755mm다. 전폭(너비) 1865mm, 전고 1660mm로 각각 10mm, 25mm 늘어났다.

또 점오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폴드&다이브' 시트를 2열에 적용해 1열 후방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트렁크 용량을 134ℓ 늘어난 637ℓ로 공간 실용성을 높였다.

1.6터보 가솔린, 2.0디젤, 1.6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개의 신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다. 1.6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180ps, 최대 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5km/ℓ로, 2.0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86ps, 최대 토크 42.5kgf·m, 복합연비 14.6km/ℓ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밖에 4WD(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했으



며, 터레인 모드에 국내 브랜드 최초로 오토 기능을 추가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지능형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됐다.

사전계약은 1.6터보 가솔린과 2.0디젤 등 2개 모델로 진행된다. 가격은 1.6터보 가솔린 기준 ▲트렌디 2442만원(2.0디젤 2634만원) ▲프레스티지 2624만원(2.0디젤 2815만원) ▲노블레스 2869만원(2.0디젤 3061만원) ▲시그니처 3193만원(3385만원)이다.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레비티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18만원이 추가된다.

기아는 사전계약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캠핑용품과 국민관광상품권(50만원 상당)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